지금 나는 다음 수업까지 시간이 남아서 여유롭게 자취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

다음 수업까지 얼마나 남았더라?

매 공강 때마다 늘 뭐 할지 고민하던 나는 유난히 오늘은 감이 안잡혀 많은 생각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꽤 여유가 있는 거 같은데 집에 도착하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려나...

여전히 뭐 할지 고민하던 도중에 나는 집에 도착했다.

지금 몇 시지? 커피 먹을 시간은 되나?

시계는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나는 인간의 3대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카페인을 먹고 학교를 가야겠거니…, 핸드폰을 키고 서랍에서 커피 가루를 꺼냈다.

하.., 생각해보면 저번달은 진짜 이상한 일들만 있었지…

생각해보니 지구하 얘는 돈을 언제 보내준다는 거야?

좀 찌질해보인다고?

몇 푼가지고 뒤끝 있고 찌질한 남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준다고 약속했으니 계속 생각날 수 밖에.

절대. 난. 찌질한 게. 아니야! (강조)

(띠링♩♪)

별 못마땅해 하던 와중에 갑자기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대에 문자 올 사람이 있었던가?

혹시 000 번호 맞나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지구하인 것은 단번에 알았지만…

네 맞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절대. 난. 찌질해! (강조)

(주인공의 찌질한 성격을 지구하가 돈 안보내준다는 것을 궁시렁거린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렵네요 참고하고 수정부탁드림요)

와... 설마 그 사이에 제가 누군지 잊으신거에요? 저 지구하예요. 저번에 술집에서 빚진 일 때문이요!  
드디어 돈이 생겨서 늦게 연락하게 됐네요.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ㅠㅅㅠ!!!

(지구하 일러스트)

(띠링♩♪)

까까오페이 입금!

입금 알림 소리와 함께 그녀가 보내준 사진을 보자마자 지난번 그 여자가 맞는지 확인했다.

당연히 그녀가 맞았고, 지구하는 길거리에서 절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풉!  
길거리에서 절을 해? 진짜 언제 봐도 황당한 사람이네…

…  
와 근데 운동한 사람이라 그런 지 몸매가…

입이 턱 막힐 정도로 예쁘고 선명한 등선을 따라 사진을 자세히 보다 보니

...

여긴...?

이 배경 뭔가 익숙한데...

나는 한창 사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디였는지 상기하고 있었다.

!

우리 학교 근처 잖아??

지금 찍으신 거 에요?

넹!! 여기 앞에 계향대 다녀서 강의 들으러 가는 길에 근처에서 찍었어요!

왜용?!?! 저 잘 나왔어요~? ^ㅁ^

아, 저도 여기 다니는데?

헐!!!! 진짜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대? 와... 세상 진짜 좁다.(화면흔들림)

(지구하 일러스트)

핸드폰 화면 밖으로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진짜 모야모야! 그럼 그 쪽은 몇 학년이에요? 무슨 학과~?!

**전 이번에 입학했는데!!ㅎㅁㅎ (강조)**

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 지금 갓 사회로 입학한 1학년한테 ‘그 날’ 힘으로 폰 뺏기고 강제 번따당한 건가?

공원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많은 질문에 머리가 핑핑 돌았지만.. 나보다 어린 여자애 한테….크흡…

뭔가 나라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어째서 눈물이..?

….

앗, 00씨!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뭔가 뭐뭐씨- 는 입에 안 붙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거든요!! +v+!!

**1. 그래, 얘기해보니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바로 본문으로**

**2. 아직은 조금 불편해..**

/\* 2번 선택지일 시,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놓아서요.

사실 저번 일 때문에 별로 안 내키는 것도 있지만…

아 그럼 오빠는 존댓말하세요!! 난 오빠라구 부를래요 ㅎㅎㅎ.

??

극 E인 건가?

저번부터 생각한 건데 정말 거절 의사가 뭐인 지도 모르는 것 같다…

또 귀찮게 굴기 전에…..받아..줘야겠지?

\*/

그래…너 하고싶은 대로 해.

ㅋㅋㅋ 000오빠 너무 귀여워요!!

000….연하한테 귀엽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연하녀한테 귀엽다는 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

아…어째서 눈물이..?

다음에 만나면 커피라도 사주세요 오빠!!

경우도 이런 경우가 없다 싶은 나는 커피 내렸던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지구하와의 카톡에 열중하고 있었고, 어느새 그 진한 커피 향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